

제26회 아카시아 이사회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가 2005년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거행되었다.

한국 참가단은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 이근창 부회장, 심재호 국제위원장 등 11명이 아카시아회원국 대표 3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첫날인 11월 29일에는 현재 회장인 Yolanda Reyes의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의 소개가 있었으며, 한국은 이철호 회장이 세계화와 지역화(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라는 주제로 1분 연설이 있었다.

아울러, UIA Region IV의 호주 Louis Cox는 특히 UIA 회장인 Gaetan Siew의 축하인사를 전달하였다. 옵저버자격으로 참가한 호주, 부르나이, 라오스, 미얀마, 몰디브가 눈에 띄었다.

태국 건축사인 Chulatat의 집에서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와 동시에 거행된 이사회는 Honorary Treasurer인 Mangalino-Ling의 회계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KIRA가 역대 아카시아 회장에게 수여하는 공로 메달의 협찬금으로 미화 10,000불을 후원하였고, 그 잔액 미화 4,783불을 입금하였음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었다. 이어서, 각 지역별 특기사항을 Zone Deputy Chairman이 보고가 있었다.

Zone A에서, 인도의 Balbir Verma는 Louis Kahn의 건축물이 아카시아단체의 청원에 의해 철거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면서 아카시아활동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Zone B에서, 태국의 Duangrit Bunnag은 아카시아 쓰나미 워크샵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회원국 142명의 대표단과 200여명의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음을 보고하였다.

Zone C에서는, 일본의 Nobuki Furuya가 UNESCO/UIA 인증관련 회의, REGION IV UNESCO 회의 등을 보고하였다.

ARCASIA Website에 대해서는 후원업체의 Banner 광고를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한국대표단이 제안하였다.

또한, PAM(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아카시아 자료은행(ARCASIA Resource Data Bank)은 현재 일본 JIA를 비롯하여 9개국만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공식적인 뉴스레터, 저널 등의 유인물을 제출하여 각 회원국에게 공유시킬 것임을 발표하였다.

ARCASIA Asia Magazine에 대한 보고는 PAM에서 진행하였다. 6, 7개 회원국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80페이지를 작성/제작토록 되어있는 당초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따라서 광고주를 확보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BCI Asia가 잡지발간에 대한 계약을 타결하고자 하여 PAM이 같은 계약조건으로 승계해야 할 형편인 바, 이에 대하여 한국은 쌍방 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BCI Asia가 타결할 사항이 아님을 이야기하였으나, PAM은 아카시아의 17개 회원국의 낮은 참여도로 인하여 계약사항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하였다. 싱가포르의 각 회원국의 협회를 통하여 작품이 게재되고 있는 현재방법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줄 것을 PAM에 요청하였다.

둘째 날인 11월 30일에는, Yolanda회장의 2005년, 2006년 활동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ARCASIA History Book 및 Architecture Asia



아카시아 각국 대표단

Heritage Book을 제작하여 각 회원국에서 건축사 3인씩을 소개토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쓰나미프로젝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아카시아의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재앙대비 대책 및 관리계획(DP & MP: Disaster Preparedness and Management Plan)을 새로이 작성했음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06년 7월 20일부터 개최예정인 Architecture Research Forum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건축사 실무위원회)의 수행업무보고에서 싱가포르의 Rita Soh Siow Lan은 건축사업무 가이드라인

을 작성함에 있어, 17개 회원국이 각기 다른 고유의 업무형태와 이에 대한 발전단계가 상이한 만큼 통일된 하나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008년 아카시아 이사회개최국에 대해서는 개최국선정을 놓고, 한국, 필리핀, 파키스탄이 각각 신청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2006년 베이징에서 새로 작성되는 개최국선정기준에 의하도록 결의하였다.

KIRA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문제에 관련 아카시아의 반대결의안의 채택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아카시아회장명의로 서명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끝으로, 차기 아카시아 회장선거는 KIRA의 이근창부회장이 선출되었고, 수락연설에서 역대 아카시아 회장들의 정신을 계승할 것과 아울러 첫째로, 회원국 간에 젊은 건축사를 상호 교류시켜 전문가교육과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것과 둘째, 회원국 간의 친선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통하여 아카시아 정신을 고취시키고 셋째, 회원국의 세계시장의 점진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글 : 심재호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아카시아 이사회

인사말

친애하는 아카시아 회장님, 태국건축사협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아카시아 이사님들 및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철호입니다. 이 곳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포럼에 대한건축사협회 8,049명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아시피, 모든 나라에서 건축은 그 나라 문화의 지표입니다. 세계화와 현시화가 빠르게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독특한 문화와 건축유산들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인 'Simplicity and Complicity'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건축의 우수함과 독창성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들간의 이사회가 아카시아의 정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철호

아카시아 결의문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 태국 치앙마이

대한민국의 관리감독기관은 건설회사에서 건축사를 고용하여 '사내건축사'로서 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사회와 집단에서 건축사의 공정한 역할과 의무가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법과 제도로 인해 건축사의 역할은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건설회사의 주된 목적과 사업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건축과 환경에 대해 유일하게 독립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건축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형건설회사에 의한 설계시장 독점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에 아카시아 이사회는 연합하여, 한국 정부의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며 한국의 환경과 건축의 질 유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건축사들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아카시아 결의문을 적극 지지하기로 한다.

2005년 11월 3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05. 11. 30

Robert S. Sac
아카시아 사무총장

Yolanda David-Reyes
아카시아 회장

교육위원회(ACAE)

TIMELINE 출판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첨부하는 내용을 규정에 맞추어 재정리하고 서론 및 기타 자료를 요약하여 첨부한다. 각국의 담당부서는 출판 스케줄에 맞추어 2006. 1. 30. 이전에 제출한다.

최종 교정본은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CROSS BORDER TRAINING(교환학생 실무 연수)

예비 건축사(학생) 인턴제도의 일환으로 국가별 교환 실무 연수를 활성화 한다. 2006년부터 교환 연수가 가능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무 연수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사무소를 조사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ARCASIA 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향후 UIA 회의에 상정하여 UIA 인턴쉽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APAE PRESENTATION(아카시아 교육 프로그램)

학생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아카시아 회원국간의 건축전공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2005년 마카오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현실적으로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주제의 협의 사항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APAE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교육 제도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스

템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간의 교육제도 및 인증제도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인증제도의 조사와 비교 분석은 한국(정재욱 교수)과 인도(Divya Kush), 방글라데시(Tawhid Amanullah)에서 담당 한다.

2) 아카시아 학생 잼버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학생 잼버리 대회를 교육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학생 작품 전시회와 학생 건축 저널 등을 창간 한다. 또한 학생의 건축 평가회의 등을 마련하여 각국의 학생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준다.

3) APAE 프로젝트의 교환 교육은 먼저 각 지역 국가(ZONE A, B, C)별로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ZONE A에 속해있는 한국은 일본, 중국, 홍콩, 몽고 등과 함께 단기 학생 설계 WORKSHOP등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초기에는 각 국가에 속해있는 대학간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활성화 시킨다. 초기 계획은 한국(정재욱, 단국대 교수)과 일본(후루야 노부야끼, 와세다대 교수)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4) 아카시아 회원국내에서 영어권의 대학들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생교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50% 한도 내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 : 정재욱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위원,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13차 아카시아 포럼

「Learning(Teaching) to be useful」

By. Kanika R'Kul(태국)

본 강의의 Speaker인 K. R'Kul은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와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를 졸업하였고, 5년 전에 Singapore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에서 「Learning(Teaching) to be useful」로 강의를 하였으며, 그때는 본인 강의가 호응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했다 한다.

5년이 지난 지금도 Learning(Teaching) to be useful이란 말을 다시 하고 싶어 했다. 즉, 다시 뛰고 싶다는 말로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건축사 자신을 실무에서 다시 테스트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렌조 피아노의 말을 인용해 볼 때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은 칼날의 끝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그 곳에 머물 수도 있고 뛰어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본인의 새로운 관심은 영감적, 협동심, 연구와 학문, 건축과 재료, 세계화, 정치학적 그리고 인간과의 약속 등이 있다 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점차적으로는 어려워지지만 점차적으로는 중요한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또 다시 렌조 피아노의 말을 인용하면서 "건축은 하나의 서비스이다. 무엇인가의 하나를 추구하기 위하여 분별력있게 그리고 겸손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건축사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들은 집을, 다리를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지어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아카시아 포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녀는 2년 전에 사무실을 열고 2개의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했다. 그 하나는 교육적인 Project로서 쓰나미 피해복구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팀에는 학생 10명, 교수 3명, 건축사 2명, 구조기술사 1명, 계약관 1명 그리고 시공기술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그 해에 할 일을 정해가고 있다. 사회복구사업이란 것이 그리 단순한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봉사프로그램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녀는 9년차 학생들과 조교와 함께 쓰나미 피해지역에 문화센터를 짓는 Program이 있다고 한다. 자연재해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 경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가 있을까? 해안선을 따라 건축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센터 건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집도 없고, 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문화센터는...”

그들은 계획을 계속 수정해야 했고, 즉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문화센터를 짓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문화센터의 중요성과 인간사회를 잇는 하나의 구심체로 그리고 건축의 하나 하나를 가르치고 이해시킴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갈 수가 있었다.

이번 Speaker의 강의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매우 유익한 원론적 강의로써 우리 건축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라 생각한다.

「Tropical city in Kuala Lumpur」

By. Ang Chee Cheong(말레이시아)

Ar. Ang은 말레이시아 건축사로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건축, 도시계획, 조경 및 예술분야에서 탁월한 소질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페낭 Truf club 부지의 재개발계획을 네덜란드 건축회사인 OMA(The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와 공동 수행하였고,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Sunny City에 대하여 Slide Show로 소개하면서 그

Project 규모는 약 6,000가구의 주거단지에서 30,000명을 거주케하는 매머드 작품으로써 상업용 건물과 문화 복합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초현대적 Project를 보여주었다. Master Plan상에서 주안점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각 Node Place마다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지형의 Contour를 이용하여 각 도로를 접목시키는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 Developing을 보여주었다.

그 주거단지에는 저소득층을 고려한 세심한 단지계획과 중·상위층이 서로 어우러져 생활을 이루어가는 매머드단지의 Master Plan은 그 작품을 돋보이게 제시하였다.

기하학적인 입체구성과 개체에서 Unit로 Unit에서 Mass로 이어지는 기하학 원리를 도해적으로 제시하면서 미래 도시를 형상화한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젊은 건축사로서 그의 노력이 한층 돋보이는 좋은 강의로 기억된다.

승효상(한국)

한국을 대표해서 발표한 승효상 건축사는 서양과 동양의 건축을 비교하면서 중심적인 건축보다 다중심적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건축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다중심적인 구조를 갖는 서울의 옛 도시구조가 어떻게 마당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과 함께 발전했는지를 설명했지만 근대이후 우리의 공간이 서양 건축과 같이 중심적이 되면서 전통적인 도시구조가 파괴된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의 대표적인 웰컴시티가 다른 여러 작품들(수백당, 베이징 커뮤니티 하우스, 한국종합예술학교 마스터플랜, 대전대학교 문화관, 북경 M 시티, 파주북시티)과 같이 소개되었다.

Anura Ratnavibhushara(스리랑카)

스리랑카의 건축사 아누라 라트나비후스하나는 스리랑카의 작고한 저명한 건축사 지오프리 바와(Geoffrey Bawa) 밑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의 건축관을 이어받은 스리랑카의 훌륭한 건축사로 소개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번 포럼의 주제인 단순성과 복합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스리랑카의 물항아리를 예로 들면서 이 항아리의 단순한 형태가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

음을 예를 들면서 그의 건축관을 이와 같은 단순성을 추구하면서 복합적인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한다. 초기의 여러 주택들과 최근의 박물관, 도서관, 산장, 호텔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물이 소개되었는데 아직까지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것이 놀라운 점이었다. 한편, 건축물의 재료로 매우 전통적인 것들만이 사용되고 있어서 한국의 60~70년대 건물을 보고 있는 듯했다.

Gary Chang(홍콩)

홍콩의 거리 창은 매우 홍콩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접근한다. 그는 홍콩처럼 과도하게 인간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 같다. 그의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홍콩의 작은 아파트들과 시내의 상점들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좁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실내의 모든 부분들이 움직이거나 접혀서 이동되고 숨겨지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때에 따라서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다. 마지막에 설명한 최근 러시아에 짓는 별장에서는 실내의 가구들이 분해되어서 실외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실내와 실외를 모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

Anupama Kundoo(인도)

인도의 아누파마 쿤두는 에너지와 건물과의 관계에서 매우 특이한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그의 건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용되어 현대에는 더 이상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을 다시 다루고 있다. 인도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값싼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점토구조로 아치를 만들어서 시공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갖는 문제를 지역적인 값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점토 벽돌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슬라브 바닥을 점토단지와 함께 만들어서 철근 양을 줄이면서 경제적이고 미적인 건물을 만들고 있다. 그녀의 집이 소개되었는데 이집에서도 그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술을 극대화 시켜서 이용하는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다. 한편 구워지지 않은 점토벽돌로 집을 짓고 나서 이후에 실내에 불을 피우면서 집 전체가 마치 도자기처럼 만들어지는 방식은 놀라운 것이었다.

Kyoko Matsuoka(일본)

일본 건축사 교코 마츠오카는 12년에 걸쳐서 설계되고 시공된 기타큐슈공항 앞의 2km의 다리 설계로 그의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첫 프로젝트였던 이 다리에서 그는 여러 관련 엔지니어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핸드레일, 조명 등과 같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건축적인 다리를 설계했다. 이어서 그는 도로설계에도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 247이라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여러 다세대 주거들도 함께 설명되었다.

Tan Loke Mun(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토클록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박사과정 연구과제로 저렴한 하우징을 연구했다. 그는 연구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저렴한 주택들을 실제로 짓기도 했다. 그는 아연판과 같은 저렴한 재료와 지역에서 손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흙벽돌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집의 거주자가 직접 간단한 방식의 집을 짓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가 말레이시아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앞에서 연구한 것들과는 좀 다른 것들로서 건축에서의 상징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접근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설명된 가우디의 작품과 같은 그의 작품에서는 큰 감동을 느낄 수 없었다.

Wong Mun Summ(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왕문섬은 높은 밀도의 싱가포르에서 매우 상업적인 건축을 소개했다. 그가 설계한 고층아파트는 세 가지의 다른 외부 입면 모듈을 갖고서 조합해서 설계되었다. 그가 설계한 싱가포르 미술관 앞의 지하철역은 상부를 모두 유리로 덮고 깊고 좁은 틈을 지하에 만들면서 이용자가 이 깊은 틈을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현상 설계를 통해서 설계중인 건축 학교와 상가건물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면서 대담한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수십층의 건물내에 거대한 아트리움을

을 만들면서 건축사가 소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트리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상부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글 : 민규암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위원, 토마건축사사무소, 오근석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위원, (주)유진인터내셔널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카시아 포럼을 다녀와서

아직까지 해외여행은 커녕 비행기 한번 못 타본 필자에게 아카시아포럼 참가자로 선발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실무경력 3년차이고 많은 업무와 야근으로 지쳐있어서 그랬던지 내 가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협회에서 받아온 인쇄물을 보니 3박4일 일정이었고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단순성과 복잡성이었다.

많은 것을 배운다기보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왔다. 현대건축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하고 화려함 보다는 단순함과 단아함을 추구한다.

이번 포럼에서도 이것이 논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주제를 발표하는 건축사들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 자못 궁금해졌다. 포럼은 이틀 일정이었고 10명 정도의 아시아의 유명한 건축사들의 발표가 있는 스케줄이다.

태국에 도착 후 아카시아포럼 야간행사에 참여하였다. 아시아의 유명한 건축사들과 교수들이 참석하였고 소규모의 공연과 아카시아 공로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간단한 저녁과 태국문화 공연을 감상한 후 내일부터 있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다. 12월 1일 드디어 포럼이 시작되는 날 치앙마이 대학교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먼저 아카시아 건축상을 받은 작품을 감상한 후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아시아의 건축사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기대와는 사뭇 달리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자신의 작품 발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건축은 과거의 외관의 화려함과 복잡함에서



신준규, 오근석, 박준용

외관의 단순함과 단아함으로 점점 변해왔다. 이것은 현대의 건축사들이 조잡한 아름다움 보다는 세련되고 잘 정리된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내부에서 외관의 화려한 조각만을 내세웠고 잘 조각된 건축물이 추구되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건축의 내부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부 동선의 복잡함과 내부의 보이드를 집어 넣고 이것을 단순하고 절제된 외피로 덮어버린다. 내부공간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경험하게 한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각박하고 차가운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건물 속에서의 자연, 삶,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건축을 삶이라고 생각 한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일상을 닮은 그릇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포럼을 마치고 우정의 밤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곳에서 아시아 각국의 장기자랑과 많은 건축인들 맛있는 음식들을 만났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의 유행으로 각국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나에게 뿌듯한 일이었다.

마지막 날 치앙마이 그랜드투어 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필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대표 : 박준용/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아카시아 잼버리 참가기

우선 태국에서 치러진 아카시아 포럼을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건축사분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Day 1. 만찬참가

첫날부터 사원에서 진행된 만찬은 태국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었고,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선생님들과 좀 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해외 건축사들과 대화하며,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 선생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건축교육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뀌고 경력에 따라 건축사가 되는 과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

Day 2-3. Simplicity와 Complexity라는 주제로 포럼 개막

간단함과 복잡함에 대해서 해외 각국 대표건축사들의 생각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것이었다.

이 첫 날의 포럼을 듣고 어쩌면 포스트 모던 시기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논점은 양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조화되는가에 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건축관이나 건축물들의 표현방법, 양식, 더 나아가 그들의 프리젠테이션 방법까지도 주제를 연상하며 듣게 되었는데, 젊은 건축사일수록 재료에 대한 표현이나 이동 가능성이 있는 건축, 혹은 구조적인 표현 등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건축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변과의 맥락이나 자유로운 평, 단면, 혹은 시적인 공간, 자연과 인공물과의 관계성들과는 다르게 건축물이라는 인공물이 건축관을 가진 건축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나,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나, 혹은 빠르게 변화하는 성향을 건축에 표현하는 것이 현대도시를 규정하고 또 건축물로 영향 받는 상호간의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대표단의 프리젠테이션은 그들의 건축을 설명하고, 그들의 건축관을 설명하는 단순한 방법이었다는 것에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자신의 건축물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들이 그 건축물에 사용한 복잡함과 단순함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단순함과 복잡함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포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이 있긴 했으나 질문 역시 주제와 다른 그들이 사용한 건축용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그쳤으며, 아카시아 포럼의 장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정리를 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이었다.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난감한 포럼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각 나라의 대표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작품들의 경향을 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또한 기후에 따라 기술에 따라, 혹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과 부가가치에 따라 건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 건축물들과 비교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포럼을 마치고 우정의 밤 행사에 태국의 색다

른 음식문화와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었고 또한 참가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행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Day 4. 마지막날의 투어

물론 사찰이나 코끼리 트레킹을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 나라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위나 습성,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몇몇의 선생님들과 조금 다른 일정으로 움직였다. 타와이 마을과 보쌍, 돈케오마을 등 다양한 수공예 마을과 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타이맛사지, 태국에서 유명한 해산물등을 먹으면서 좀 더 태국인들의 문화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너무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많은 체험과, 쉽게 들을 수 없는 세계 각국 건축대표의 생각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생대표 : 윤새봄/인하대학교 건축대학원)



아카시아 Friendship Night 행사시 한국대표단 공연 모습



아카시아 포럼 발표자 Ang Chee Cheong(말레이시아, 뒷줄), Gary Chang(홍콩, 아랫줄 왼쪽)과 함께